



광야의 소리

알버커키 한인연합감리교회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9500 Constitution NE Albuquerque, NM 87112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철경을 평탄케
하라.

발행인: 김학수

제 13 호
1992년 가을호

교회를 사랑하자

(사도행전 20:25-28)

담임목사 김학수

사도바울은 에베소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에서 여하한 환난중에서라도 복음에 굳게서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도록 간곡하게 당부하였습니다. 충성스러운 교회봉사를 실천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와 교회란 "하나님께서 자기피로 사신 교회"임을 명심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독생자의 피로사신 땅위의 교회들이 언제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생각할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피로 사신 교회"라는 신앙고백을 할수있는 성도들은 누구나 교회의 거룩성과 존귀성을 보존하며 충성스럽게 섬기며 사랑하도록 힘쓰게 될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우주적인 교회는 영원하지만 지역교회들은 결코 영원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결코 인간이 세우는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교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곳이나 더 이상 보존되어질수 없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문을 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만큼 허락받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들이 한곳에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동안 얼마나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였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처음 교회들은 오래전에 교회문을 모두 닫았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모범적인 교회들이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문을 닫는 대표적인 원인들은 첫째로 신앙계승과 전도의 결실이 부진한 때문이요, 둘째는 지역사회 인구의 격감때문이고, 셋째는 지역교회가 당면하는 재정 빈곤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불가항력적이지만 첫째, 셋째이유는 극복될수 있는 원인들입니다.

금년으로 우리교회는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곳 알버커키 한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10년전에 교회를 세워주신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도우심가운데 우리교회를 정성으로 섬기신 많은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 교우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진지한 신앙고백을 굳게하며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스럽게 섬기실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비를 보내며...

알버커키 한인 연합감리교회
남선교회

구국감리교회 목사님 및 교우님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위에 주님의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 믿음을 행하실 구국 감리교회 목사님 및 교우님들 안녕하십니까? 멀리 이곳 미국의 뉴멕시코주 알버커키에 있는 저희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소식을 실어 주님의 사업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행하시는 모든 사업이 기도로 이루어 질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다가도 세상의 소음에 휩쓸려사는 약한 우리 인간들이라 때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원망할때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그 어떤일에도 항상 하나님의 소중한 믿음을 간직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함께할때 너희들의 뜻과 정성들 분명 주님께서는 실행해 주시리라 여겨집니다. 이곳 저희교회 남선교회에서는 얼마전에 거라지세일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는 교회 설립주일을 앞두고 그 수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지나간 10년을 지탱해 오신 분들께 기도하며, 신앙의 믿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들어 유난히도 교우님들의 사업때문에, 학업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며 주를 섬기던 교우님들이 멀리 타주로 이주해 가는 까닭에 송별회때문에, 허전한 교회의 성전이 온 성도들의 근심하는 기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떠나간 이분들 하늘나라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주를 섬기며 충성하실 종들인 까닭에,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교우들 더욱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지금은 새로 이주해 오신 여러분들의 전도에 온 교우들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찌면 저희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구국 감리교회에 전하는, 이 사랑의 메세지도 저희 온 교우들의 정성과 기도를 다 하는 기쁜사업의 하나임을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작은 정성이나마, 하나님의 사랑만은 가장 큰 저희 남선교회에서 이해 후반기 사업으로, 정성을 모았습니다. 캄캄한 대지에 작은 촛불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신실한 일꾼의 교회가 멀리 우리 조국의 구국감리교회에 영원토록 함께하기 빌어드립니다.



당신의 숲 속에서

李海仁

당신의 숲 속에서 나는
도토리만한 기쁨을 주우며
마음도 영글어 가는
한 마리의 신나는 다람쥐

때로는 등그란 기도의 알을 낳아
오래오래 가슴에 품어 두는
한 마리의 다정한 산새

당신의 숲 속에서 나는
思惟의 물을 풀어 내어
열심히 집을 짓는
한 마리의 고독한 거미

그리고 때로는
가장 조그만 은총의 빵부스러기도
놓치지 않고 거두어 들이는
한 마리의 감사한 개미

어느 아침엔
한 편의 서정시로 살아 오시더니
어느 밤에는
한 편의 서사시로 살아 오시고

어느 봄에는
환상이 흐르는 추상화이시더니
어느 가을엔
은은한 빛의 동양화이시고

어느 여름엔
바다빛 교향곡으로 오시더니
어느 겨울엔
하얀 눈빛의 가곡으로 오시고

끊임없는 언어와
끊임없는 빛깔과
끊임없는 소리로

당신이 살아오는
당신의 숲 속에서 -

선교지에서 온 소식

구국감리교회 목사 이강선

알버커키 한인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께!

머나먼 이국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쓰시는 알버커키 한인 연합 감리교회 전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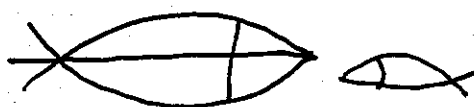
이곳 한국땅은 예전보다 여름이 빨리 찾아와서 무척이나 기온이 높습니다. 아마도 요즘 심각하게 거론되는 오존층의 파괴로 인하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의 일부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예고하는 기쁜소식일지도 모르겠군요.

주님의 역사와 은혜는 어느곳에도 미치지 않음이 없기에 우리는 주님안에서 지구의 이편, 저편이란 거리에 관계없이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구국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의 손길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선교비도 잘 받았읍니다. 저희 구국교회로써는 정말 큰 도움이고 힘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항상 알버커키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현재 알버커키 교회가 계획하는 일과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중한 하나님의 구원의 만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구국교회도 알버커키 교회의 사랑의 손길에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어느 기도

김순자 집사

살아계셔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간도 저희들 생명을 지켜주셨나이다. 또한 저룩한 성일을 맞아 저희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머리숙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걸어온 지난 한해를 돌아볼때 속좁은 이기심과 계으름을 부끄러움으로 뉘우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위한 희생과 노력이 지극히 부족한 저희에게 갚을길 없는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여전히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기전에 나 자신을 돌아볼수 있는 지혜와 아량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돌보아주시며 가슴의 아픔을 덜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이기를 당신이 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소리를 들을수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할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한다는것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며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리라는 확증을 받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결코 버리시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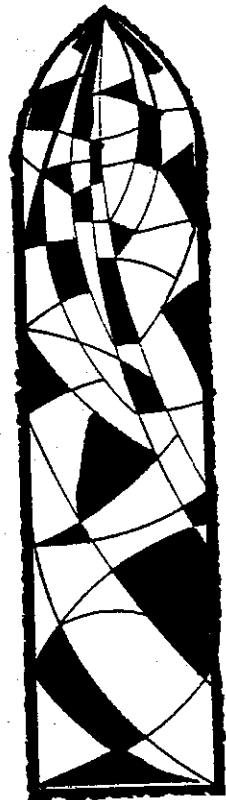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부족한 저희들을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곳에 사랑을 가져오는자 되게 하여주시고, 다름이 있는곳에 용서를 가져오며, 본질이 있는곳에 일치됨, 의혹이 있는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그리고 슬픔이 있는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하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줌으

로써 받고 용서하므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으므로써 영생을 얻는다는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늘 당신의 품안에서 당신만을 따르는 어린양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안에서 확신과 체험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하루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알도리가 없아오나 당신만은 아시는 그 숨겨진 계획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앞에 겸손히 무릎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당신의 십자가 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당신 홀로 높은곳에서 영광받으시며 당신의 나라를 이곳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는 마음, 축복받는 마음

이제영 교우

언젠가 하계 수양회때의 일로 기억된다. 그날도 일정에 따라 초빙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불렀었다. 순서에 따라 휴식시간후 각자의 전공을 — 그때 내가 다닌 교회는 학생이 대부분인 교회였었다. 나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것인가에 대한 토론의 순서가 되었다. 벌써 오래전부터 주제를 정해 계획한 일들이라 다양한 성도들의 자신과 혹은 자신의 신앙과 전공에 대한 계획들을 들을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나의 마음을 숙시원히 풀어준 것이 있다면, 아직도 믿기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 부터 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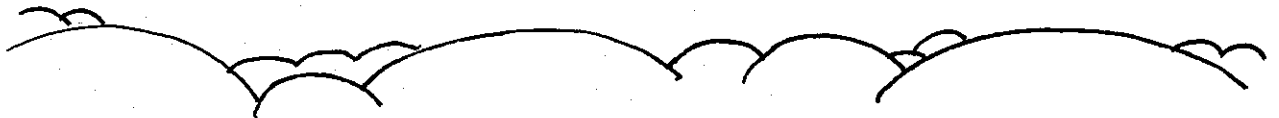
어느 성도로 부터 — 아마 지금의 기억으로서는 그때 당시 그 성도는 나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것으로 기억된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의 사회에 적응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술집에서 유행가를 부르며, 팁을 건내는 것도 피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목사님께 여쭙었던것 같다. 속으로 나는 그 성도의 질문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었다. 우리들이 살아온 현실과 사회의 유혹들이 어찌면 나 자신속에서도 피할수 없이 아니면 그 유혹들속에서 휩쓸려 왔었던것도 사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의 우리사회, 너무나 범죈하기 쉬운 이 세상에 살고있는 내 자신으로서는 당연한 나의 회의였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서는 믿는 우리 성도들은, 술은 피하고 자제를 하여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유행가 대신 찬송가를 울려 퍼지게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대답하셨다.

오!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축복받는 자들의 뜻있는 찬송을 깊이 깊이 새겨서 찬양드릴때, 주님의 약속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골고새서 3:16) 믿지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할수 있을까요? 아주 평범하게만 들리는 그 목사님의 간단한 해답이 지금도 내 기억에 몽글히 와 닿는다.

그날이후 나의 생활은 아니 우리집의 모든 음악들은 찬송가 테이프들로 바뀌어 졌고 기독교 방송 (알버커키는 FM91.5)은 나의 귀중한 체널이 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찬송을 부르고, 귀한 사랑의 메세지를 듣는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귀중한 일과요, 찬송을 부르며, 찬미를 들으며, 시작하는 하루는 나의 소중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 여기며 계속되어 왔고 영원히 계속하고 싶은 나의 소망이다.

사랑의 교우님!

당신은 시련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요? 이웃에게 욕하며 범죈하지는 않았는지요? 어디선가 도움을 필요로 하며 다른곳에서 헤메지는 않았는지요? 평온한 안식을 갖기 위해 고민하시지는 않았는지요? 의심과 실망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찬송하게해 주소서. 희망과 구원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소서. 그 사랑,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새기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께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없으니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뵈때까지 우리 마음속의 사탄의 마귀 톱타지 않게 당신의 찬송을 통해, 우리의 사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귀한 주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에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당신”(잠언 6:19)이기에 저희들의 모든것을 주님께 기꺼이 맡기웁니다. —아 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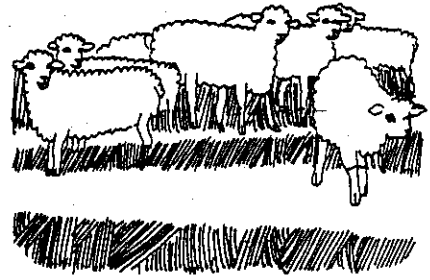
나의 영원한 참 벗

이옥주 집사

학교로 일터로 보내느라 이른 아침의 부산하던 시간도 지나가고 나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한잔의 커피로 만끽해 본다. 평화가 내 마음에 물밀듯 밀려와 임하는것을 느낀다. 이 조용한 시간에 나의 “영원한 참 벗”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항상 사랑과 자비와 인내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의 “영원한 참 벗”과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한다.

미국에 이민와서 멀리두고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그리워 하며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느꼈던가? 20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곳에서도 많은 새 친구들과 사귀게되었다. 자주 모임도 갖고 외로움을 서로 달래며 지나곤 했다. 때로는 내 생활의 방향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먼저 염두에 두고 설정하지는 않았던가? 남의 주관에 내 주관을 맞추려고 노력할때도 있지 않았던가? 남의 주관이 내 주관에 맞지 않는다고 원망하지는 않았던가? 내 주관적인 얘기가 객관적으로는 왜곡되어 들려져서 가슴아픔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던가? 이런 작은 세상일로 인하여 내 마음은 불안정할때가 많았고 영원한 참 평화를 가져 보지 못했었다. 목자없이 길 잃고 떠도는 양같은 나에게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참 벗인 예수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다. 나는 차츰 차츰 이 예수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영원한 참 벗”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 하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데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 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하였음이니라.”(요한복음 15:14,15).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영원한 참 벗”을 만나게해 주심으로 내 마음에 참 평화를 깃들게 하셨다. 이 “영원한 참 벗”은 내게 시험이 닦쳐왔을때 흔들리지 않는힘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내 맘에 기쁨이 다시 넘치게 하신다. 나는 이제 나에게 “영원한 참 벗”이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말한다. 나의 주관도 나의 영원한 참 벗이 이끌어 주심을 느끼며 남이 내 주관에 맞지 않는다고 미워지지도 않고, 내가 이웃의 주관에 맞추어 살려고 안타까워 하지도 않고 오직 내 참 벗만 생각하며 그가 나의 참 마음을 아신다는것을 생각할때 나는 평화의 세계를 맛보게 된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는다손 치드래도 조금도 외국됨이 없이 내 참 마음을 아시는 참 벗이있기에 나의 맘은 항상 평화로 가득하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며 그의 참 사랑의 말씀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정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나를 경건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게 이끌어 주시는 “영원한 참 벗”이다. 나는 나의 이 영원한 벗의 사랑을 더 느끼면 느낄수록 나도 그의 말씀안에서 행함을 노력함으로써 나의 사랑을 그 벗에게 드리며 보답하고 싶다. 나는 이 “영원한 참 벗”을 실망시키고 싶지않다. 그가 나의 행함으로 인하여 실망하여 내게서 떠날까봐 두려움에 떨며 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본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의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고린도후서 1:12

또 이 나의 영원한 참 벗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13) 하신 그의 말씀. 이 조용한 아침 나는 “나의 영원한 참 벗”과 마주 앉아 그와 대화를 갖는다. 그는 내 마음에 더한 평화가 깃들게 하시며 그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하신다. 이 모든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광야의 소리는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생활 주변에서 일어난 소재를 바탕으로 한 신앙 체험담, 수필, 시, 풍토 등을 보내 주시면 검토 후 정성껏 게재하겠습니다.
보낼 곳 : 본 교회 공보부 (교회사무실)

지나간 소식

* 교회학교의 주일학교 수련회가 7월 10일과 11일 타오스의 로텐스랜치에서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와 재미있는 게임, 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7월 26일 연합 감리교회 가입 7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가대의 특별찬양과 예배 후 공동식사로 더한 친교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 7월 19일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의 월례회가 있었으며 공석이된 남선교회 회장에 김성호 집사를 선출하였고, 여선교회 부회장이신 한영선 집사께서 여선교회 회장직을 대행하시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재무회계와 소망 속장님으로 본 교회를 섬겨오시던 남호운, 남숙 인집사 내외분 가족들이 샌디아고로 이사가셨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크리스찬의 향기가 그득하시길 기도합니다.

* 교회의 공보부장과 한글학교 교사로 수고 해주신 박종만, 김신선교우 가족이 8월말 고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박종만 교우는 University of Connecticut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동안 UNM화학과에서 연구원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 8월 23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남선교회 주최로 거라지 세일을 하여 288불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이날 모금한 전액은 고국 농촌의 구곡감리교회에 보내는 선교비에 보태어 졌습니다.

* 9월 12일 새 등록교인 환영회가 청직부 주관으로 목사관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3일 본교회 창립 10주년 예배가 기념촬영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10주년 기념

식수로 나무 10 그루를 세인트 폴 교회에 기증했습니다. 이 나무기증에는 찬양대, 남선교회 및 여선교회를 포함한 각 기관들에서도 도와 주셨습니다.

* 뉴 멕시코주 한인회에서 주관하는 Adopt-A-Highway 프로그램이 9월 26일에 있었습니다. 본교회에서도 여덟분이 참가하시어 청소 봉사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가졌었습니다.

* 삼년간 본교회 교인으로 계셨던 강정찬 강원회교우 가정이 9월 말에 오하이오로 이사하였습니다.

* 1984년 부터 1987까지 본교회에 봉사했던 최규남 집사께서 Conference에 참가차 알버커키에 오셔서 저희 수요 성경공부에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소식

* 학습, 세례 예식이 10월 25일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내시고 기도하며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 남선교회 주최 헌신예배가 10월 25일에 있습니다. 모두들 늘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교회에서는 주일날 본예배외에도 수요일 성경공부가 있으며 토요일 아침 6시에는 새벽기도회가 있음을 성도 여러분께 다시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새벽의 시원한 공기로 시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한글을 모르는 어른들을 위한 한글학교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본교회로 연락주시요.



알버커키 한인연합감리교회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9500 Constitution NE
Albuquerque, NM 87112

담임목사: 김학수

Church Office (505) 294-3327
Res. 266-7288

TO:

교회 모임 안내

| | | |
|---------|---------------|-------|
| 주 일 예 배 | 주일 오후 2시 | 예 배 실 |
| 교 회 학 교 | 주일 오후 2시 | 교 육 관 |
| 성 경 공 부 |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별 관 |
| 속 회 | 금요일 오후 7시 | 속 회 별 |
| 새 벽 기 도 | 토요일 오전 6시 | 채 풀 |
| 한 글 학 교 | 주일 오후 1시 | 교 육 관 |